

‘제주형 사고예방’ 정책 발굴 절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12 에필로그

116개 프로그램 추진
사고손상 조사망률
전국보다 17.5% 높아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내 6개 종합병원과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한데 이어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주지역 사고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고손상 사망률 저감은 오는 2022년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을 준비하는 제주도의 역점 과제이자 도민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고예방 정책 발굴이 지속적으로 요구되

고 있다.

제주소방은 올해 도내 45개 기관(부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고위험 환경·연령계층 등 10대 분야에서 116개 사고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5개 과제에서 사고예방프로그램 4개를 제외하는 대신 아동·청소년, 화재안전, 사업장안전 등 안전프로그램 5개를 신규 발굴했으며, 협업과제 12개를 포함했다.

올해 116개 과제는 △아동·청소년안전 14개(협업 2) △노인안전 7개 △교통안전 17개(협업 4) △지역안전 33개(협업 2) △화재안전 13개(협업 1) △수난안전 7개(협업 1) △관광·스포츠안전 7개 △폭력·범죄안전 7개(협업 2) △산악안전 4개 △사업자안전 7



지난달 3일 운영에 들어간 제주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들이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개다.

제주소방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유관부서가 안전정책과 안전시설,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 이어 도민과 지역단체가 참여해 이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내 6개 종합병원 응급실과 28개 119구급대 등 소방안전본부 간 제주 손상감

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에 성공한 제주지역 사고손상 조사망률은 2007년(80.0명) 이후 평균 1.47명씩 감소하면서 2014년 60명대로 진입 하긴 했지만 최근 5년간 조사망률 평균은 63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를 나타내는 조사망률은 지난해 제주가 62.4명으로, 전국(53.1명)보다 17.5%(9.3명)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2020년 61명, 2021년 60명, 2022 59명 등 사고손상 조사망률 저감 목표를 재설정,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사고예방프로그램 발굴이 과제로 남고 있다.

한권 기자

25.3 X 16.5 cm